

韓國의 釋讀口訣과 日本의 訓點資料에 기입된 逆讀點에 대하여*

尹幸舜**

目次

1. 머리말
 2. 한국의 釋讀口訣資料에서 나타나는 逆讀點
 3. 일본의 訓點資料에서의 逆讀點
 4. 韓日의 釋讀資料에서 나타나는 逆讀點의 성격
 5. 맺음말
-

1. 머리말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고유의 문자가 없었던 시대는 물론이며, 자국의 문자가 만들어져 사용된 시대에서도 19세기 말까지는 중국의 漢字·漢文을 받아들여 사용한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한문독법은 여러 단계로 변하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된 한문독법은 초기에는 중국인과 같은 음독에 의한 한문독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만, 상당히 이른 시기에 자국어와는 매우 다른 문장 구조를 가진 한문을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자국어와 동일하게 읽고자 하는 釋讀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현존하는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우선 한국에서의 한문독법의 변천은 일본에 비해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한국의 한문독법은 석독구결과 음독구결로 나타나는데, 11세기부터 나타나는 석독구결에서 13세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음독구결로 정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은 기입된 구결의 방식에 따라서 부호구결(點吐口訣)과 문자구결(字吐口訣)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변천에 대한 구결의 특징이 최근에 발견된 11세기와 12세기 사이에 간행된 角筆符號釋讀口訣의 佛典資料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音讀口訣은 墨書文字釋讀口訣에서 簡素化된 것으로서 알려져 있었다.¹⁾ 그러나 角筆符號釋讀口訣의 독법이 동사에 대한 口訣을 원칙적으로 문장의 마지막

* 이 논문은 2004도 한밭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한밭대학교 부교수 일본어학

구성소에 몰아서 기입하는 형식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音讀口訣의 발생은 墨書文字釋讀口訣에서 직접 발달한 것이 아니라 角筆符號釋讀口訣에서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

한국의 한문독법이 다양하게 변천 발전한 것과는 달리 일본의 한문독법은 9세기부터 시작된 한문훈독이 현대에까지 이르고 있다. 漢文訓讀은 한국의 석독구결자료보다 이른 시기인 9세기초기의 訓點資料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으며, 그 이후의 방대한 훈점자료들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일반적인 훈점자료에서는 음독자료는 보이지 않으며, 훈독에 의해서만 한문독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9세기경부터 문자(片假名)와 부호(오코토집)의 사용에 의한 訓讀이 이루어졌으며, 14세기경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자에 의해서만 읽는 訓讀이 一貫性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漢文讀法은 매우 다른 발전단계를 거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發展狀況은 한일 양국어의 文章構造가 매우 類似하다는 점에서, 漢文讀法에 있어서도 석독에 대한 방법은 그 類似性을 가지고 發達했을 가능성과 함께, 한편으로는 다른 發達 過程의 차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차이점도 발견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한일 양국어의 문장과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다른 한문의 문장을 자국어와 똑같이 용이하게 읽어가 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여 한문석독법을 발전시켜 왔다. 한문 석독법은 한일 양국의 문자와 언어생활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양국의 국어의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문석독법에 있어서 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어순의 문제였으며, 또한 한문을 석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어순에 대한 부호의 기입이었다. 실제적으로 한일 양국의 한문석독자료에서는 어순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역독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석독구결자료와 일본의 훈점자료에 있어서 어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양국의 한문석독에서 사용된 역독점의 차이를 비교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1) 沈在箕(1975) 「口訣의 生成 및 變遷에 대하여」, 『韓國學報』1, 一志社

南豐鉉 · 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研究(其一)」, 『東洋學』6, 단국대학교

2) 南豐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24호, 韓國書誌學會 32~33쪽

2. 한국의 釋讀口訣資料에서 나타나는 逆讀點

2.1. 한국의 釋讀口訣資料

한국에서의 석독자료들은 한문독법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인해서 角筆符號釋讀口訣, 墨書文字釋讀口訣, 朝鮮時代의 墨書文字釋讀音讀口訣의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자료의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그 첫 번째로서는 최근에 발견된 角筆符號釋讀口訣資料로서 「瑜迦師地論」三卷(卷第三·卷第五·卷第八), 「大方廣佛華嚴經」七卷(卷第六·卷第二十二·卷第三十一·卷第三十四·卷第三十六·卷第五十七(以上周本華嚴經)·卷第二十(晉本華嚴經)), 「妙法蓮華經」五卷(卷第一(延世大本)·卷第七(修德寺本)·卷第一·卷第七(祇林寺本)·卷第四(個人所藏本), 「金光明經」一卷(卷第三)으로 16點의 資料가 報告되고 있다.³⁾

이 중에서 본 연구에 중심이 되는 「瑜迦師地論」과 「大方廣佛華嚴經」은 誠庵古書博物館과 湖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이며, 11世紀前半에서 12世紀初期에 이루어진 初雕大藏經과 再雕大藏經의 底本이 된 것으로 推定되는 木板本이다, 이들 자료에 기입된 角筆點은 板本이 完成된 直後에 기입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全卷에 걸쳐서 角筆點의 符號만으로 漢文의 內容을 상세히 읽을 수 있도록 기입되어 있다.⁴⁾

이들 佛典에는 부호구결(點吐口訣)이 사용되고 있으며, 角筆口訣點이 中心을 이루고 있으나 「金光明經」에서는 角筆과 墨筆의 口訣點이 이중으로 가점되어 있다. 이러한 資料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호구결(點吐口訣)은 日本의 오코토(ヲコト)點과 같은 機能을 나타내고 있는 漢文讀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原漢文의 文章을 韓國語로 읽기 위하여 필요한 逆讀點이나 조사나 조동사 등을 該當하는 漢字의 字面과 漢文의 行間에 角筆의 單點과 線點 등을 기입하는 형식이다. 각필의 다양한 符號의 형태와 한자에 기입되는 位置

3)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해서」, 『書誌學報』 第24號, 韓國書誌學會.
李丞宰(2000) 「새로 發見된 각필(角筆)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第10卷 第3號, 國立國語研究院.
南豊鉉·李丞宰·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について」, 『訓點語と訓點資料』 第107輯, 訓點語學會.
南豊鉉(2002) 「高麗時代角筆點吐釋讀口訣의 種類와 그 解讀 - 晉本華嚴經卷20의 點吐釋讀口訣을 中心으로 -」, 『朝鮮學報』 第183輯, 朝鮮語學會.
小林芳規·西村浩字(2001) 「韓國遺存의 角筆文獻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第107輯, 訓點語學會.
장경준(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방법 연구 - 권5, 8의 단점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과박사학위논문, 3쪽.

4) 角筆符號釋讀口訣資料는 鄭在英外(2003) 「韓國角筆符號口訣資料와 日本訓點資料 研究 - 華嚴經資料를 中心으로 -」, 太學社, 李丞宰外(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 - 初雕大藏經의 「瑜迦師地論」 卷第와 卷第를 中心으로 -」, 太學社, 등의 資料의 移點本을 參考함.
서민욱(2004) 「『瑜迦師地論』 卷5·8의 點吐口訣 研究」, 가톨릭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특히 公刊되어 있지 않은 부호구결 자료의 용례에 대해서는 구결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매주 열리는 강독연구회의 연구를 참조하였음.

에 따라서 그 讀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墨書文字釋讀口訣資料로서 「大方廣佛華嚴經疏 卷三十五」(12世紀初期,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12世紀後期), 「舊譯仁王經 上卷」(13世紀中期), 「金光明經 卷第三」(13世紀中期), 「瑜伽師地論 卷第二十」(13世紀後期)의 五點을 들 수 있다.⁵⁾ 이 자료들은 1973년 「舊譯仁王經 上卷」이 발견된 이후의 고려시대 석독구결자료로서 한국에서도 일본의 훈점자료에서와 같이 한문을 석독하여 읽었다는 점을 최초로 밝혀준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어법 현상은 15세기 한국의 중세시대의 어법으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점에서도 한국어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역독점」과 「左側口訣字記入」이라는 방법을 고안하여 한국어로 읽기 위한 어순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조선시대에 간행된 音讀한글口訣 판본에 기입되어 있는 墨書文字釋讀音讀口訣資料이다. 현재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자료로서는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上一之二」(가람본, 1465年刊),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下三之一, 下三之二」(남풍현본, 1465年刊),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卷上 언해본」(가람본, 世祖時의 刊經都監刊本으로 推定), 「妙法蓮華經卷第一」(志部昭平本, 15世紀後期), 「牧牛子修心訣」(小倉進平舊藏, 1467年刊)의 6點을 들 수 있다.⁶⁾ 이 자료들에 나타나는 목서의 석독은 15세기말, 16세기초 이전에 기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글로 현토한 음독구결 판본에서 아주 상세하게 석독한 특이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들어가서는 음독구결이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석독하기 위하여 한국어의 어순을 나타내기 위하여 漢數字의 부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귀중한 자료이다.

2.2. 釋讀口訣資料에서 사용된 逆讀點

[角筆符號釋讀口訣] 7)

㉠ 諸天卽受彼地離生喜樂

【諸天(ㄴㄱ)卽彼地ㄷ離生喜樂乙受ㄴ】

<瑜伽師地論卷五 01:05-06>

- 5) 墨書文字釋讀口訣資料는 影印本 「舊譯仁王經 上卷」, 『口訣研究』1(1996) 所收 影印本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 『口訣研究』2 (1997) 所收 複寫本 「金光明經 卷第三」, 「大方廣佛華嚴經疏 卷第三十五」를 參照 하고, 해독문은 『口訣研究』3 (1998)에 收錄된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를 參考함
- 6) 安秉禧(1976),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震檀學報』41. 震檀學會 藤本幸夫(1992), 「李朝訓讀攷 其一」, 『朝鮮學報』143, 朝鮮學會 본고의 墨書文字釋讀音讀口訣의 용례는 상기의 논문에 게재된 영인자료 등에 의함.
- 7) 角筆符號釋讀口訣의 용례 아래에 제시한 []는 省書字의 문자구결로 바꾸어서 한국어 어순으로 나타낸 것임(이하 동일).

㉔ 不能斷後世大苦者謂

[後世之大苦之斷不能ハクマテ一(者)ノト入ト謂]
〈瑜迦師地論卷五 03:18-19〉

㉕ 此顯自心忍可欲樂當所說義

[此ト由マ心ト誰所說ト樂之忍可欲樂ト入ト顯トク]
〈瑜迦師地論卷八 16:18-19〉

㉖ 譬如日輪光耀焰盛如是

第六心能 ----

[譬入ト日譬ト光耀焰盛ト(如)支是(如)(支)第六心ト能ト----]
〈金光明經卷三02:08-9〉

㉗ 如是無量諸天女發此言辭稱讚

[是如支量無ト諸ト天女ト(此)ト言辭ト發トホ稱讚ト入ト已トトトト]
〈大方廣華嚴經卷三十六 07:18〉

상기의 角筆符號釋讀口訣資料 중에서 逆讀點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瑜迦師地論」과 「金光明經」이며, 「華嚴經」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① 「瑜迦師地論」의 「모든 하늘은 곧 그 地의 離生喜樂을 받으며」에서는 역독을 받는 동사 「受」에 右下向의 긴 弧線을 기입하고 있다. ② 「瑜迦師地論」의 「後世의 大苦를 끊을 수 없다 함은 이른바」에서는 연속적으로 역독을 받는 동사 「斷」과 「能」에 우하향의 긴 弧線을 기입하고 있다. ③ 「瑜迦師地論」의 「이는 자기의 마음에 當所說의 義를 忍可欲樂함을 나타냄이며」에서는 「忍可欲樂」의 四字合符와 동사 「顯」에 右下向의 긴 弧線의 「合符逆讀符號」을 기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독점은 「瑜迦師地論」에서 나타나는 형태들이며, 상당히 많은 예들을 기입하고 있다. ④ 「金光明經」 「비유하면 日輪이 光耀焰盛한 것 같이 이와 같이 第六心이 능히 ----」에서 형용사 「如」에 左上向의 긴 弧線을 기입하고 있다. 「金光明經」의 역독점의 형태는 긴 弧線으로 나타나지만, 그 방향이 右下向, 左下向, 左上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金光明經」의 부호구결의 기입형태가 「瑜迦師地論」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金光明經」에는 墨書文字釋讀口訣이 중복되어 기입되어 있는 특이한 자료이다. ⑤ 「華嚴經」의 「이처럼 한없는 많은 天女들은 이 言辭를 發하여 稱讚하기를 마치고」에서 역독을 받는 동사 「發」이나 명사 「言辭」에 목적격 조사 「을/를」의 부호구결 외에 역독을 표시하는 부호를 기입하고 있지 않다. 角筆符號釋讀口訣의 華嚴經資料에서는 역독점이 전혀 사용하고 있는 않은 것이 원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점은 부호구결의 기입형태가 다른 계통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에서 역독점의 사용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墨書文字釋讀口訣] 8)

⑥ 但ハ觀^ノ諸^ノ行^ヲ如^ク夢、不^レ實、無^シ有^ル貪著尸爲^レ令^ニ衆生^シ捨離^シ惡趣^シ

<大方広仏華嚴經疏卷三十五 15:09-11>

⑦ 整衣^シ束帶^シ當願衆生檢束^シ

善根^シ不^レ散失、<大方広仏華嚴經卷十四04:07>

⑧ 時^ニ諸^ノ大衆^ノ聞^ク月光王^ノ歎^ク

十四王^ヲ無^シ量、功德藏^シ、得^テ大法利^シ、

<旧訳仁王經卷上11:14-15>

⑨ 譬如^ク日輪^ノ光耀焰盛^シ、如^ク是、第六心^ノ能^ク

破滅^シ生死大闇^ニ、故^ニ<金光明經卷三02:08-9>

⑩ 光明想^ヲ多^ク緣^シ光明^シ、以^テ爲^ス

境界、

<瑜伽師地論卷二十11:03>

상기의 墨書文字釋讀口訣의 모든 자료에서는 逆讀點을 사용하고 있다. 省劃字의 구결자를 한문의 좌우행간에 기입하고, 역독을 일으키는 한문이나 문자구결에 역독점[·]을 기입하여 한문을 한국어 어순으로 읽고 있다. 이 자료에서 사용된 省劃字의 구결자는 漢字의 初畫과 終畫으로서, 예를 들면, 〸(ki/只), ㄱ(kyo/在), 口(ko/古), 尔(kom/爾), ㄱ(ün/隱), 乃(na/那), ㄴ(no/奴), ㄴ(nu/臥), ㄴ(ni/尼), ㄴ(to/刀), 斗(tu/斗), 知(ti/知)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이 많다. 우선 상기의 자료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⑧ 「舊譯仁王經」의 예를 들어 역독점을 사용하여 한국어 어순으로 읽어 내려가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時⁺ [쁘끄] 부터 諸^ノ [모든] 大衆^ノ [大衆은] 月光王^ノ [月光王이] 十四王^ヲ [十四王이] 量 [그제] 의 역독점이 있는 곳까지 [聞]과 [歎]을 제외한 오른쪽의 구결자를 읽어 내려간다. 量 [그제] 의 뒤에 기입되어 있는 역독점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서 量 [그제] 에 가장 가까운 곳에 기입된 좌측 구결자인 無^シ [업슨]을 읽는다. 그 다음에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功德藏^シ [功德藏을]을 읽고 그 뒤의 역독점에 의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직 읽지 않은 좌측의 구결자 중에서 功德藏^シ [功德藏을]에 가장 가까운 歎^ク [호]의

8) 墨書文字釋讀口訣의 省劃字의 훈은 右訓은 大字, 左訓은 위쪽의 小字이며, 「·」는 역독점을 나타낸다.

墨書文字釋讀音讀口訣은 조선시대의 후기에 간행된 音讀한글구결 판본에 墨書로 한문을 읽는 순서를 나타내는 漢數字와 역독의 부호 등이 기입된 자료들이다. ⑪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에서는 우측에 한문을 읽는 순서를 나타내는 漢數字「一二三」과 좌측에는 「合, 合者」에 대한 한국어의 훈 「어우, 어운거시」와 「於是」의 省劃字가 목서로 기입되어 있다. 동일한 ⑫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에서는 우측에 한문을 읽는 순서를 나타내는 漢數字「一二三四」와 漢數字보다 상위를 나타내는 순서를 「〇, 〇〇, 〇〇〇」를 기입하고 있으며, 좌측에는 「向一來」의 훈인 「아리」와 「說」의 훈인 「니르실 돌」이 기입되어 있다. 특히 漢數字「四」는 「一二三」과 같이 橫劃으로 4개로 기입하고 있다. ⑬ 「妙法蓮華經」에서는 우측에 한문을 읽는 순서를 나타내는 漢數字「一二三四五」를 기입하고 있으며, 이 예에서도 漢數字「四」는 「==」와 같이 기입하고 있다. 좌측에는 具足과 從에 「〇, 〇〇」를 기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독을 시작하는 단어와 역독을 받는 단어에 표시한 부호이다. 이 자료에는 상위의 어순을 나타내는 부호로서 「8」과 같은 형태도 사용하고 있다. ⑭⑮ 「牧牛子修心訣」에서는 우측에 한문을 읽는 순서를 나타내는 漢數字「一二三四五六」를 기입하고 있으며, 이 예에서도 漢數字「四, 五」를 橫劃으로 4개와 5개를 기입하고 있다. 또한 순서를 나타내는 漢數字의 ㊦㊧는 「牧牛子修心訣」에만 나타나는 기입 방법으로 문자 안에 漢數字를 기입한 예들이다.

3. 일본의 訓點資料에서의 逆讀點

3.1. 일본의 訓點資料

일본에 전해지는 훈점자료는 방대한 양에 이르고 있는데, 築島裕가 직접 조사한 平安時代 訓點本(783~1200)은 총 3,355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에서 訓點年代가 記入되어 있는 자료는 1,964점(64.3%)이며, 訓點年代가 記入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1,391점(35.7%)이다. 이것을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9세기 訓點本은 180점인데 이 중에서 年代가 기입되어 있는 자료는 약8% 정도이며, 10세기 訓點本 190여점 중에서도 21%을 약간 넘고 있다. 그런데 11세기가 되면 訓點本數는 10세기의 약 3배인 600점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訓點年代가 기입되어 있는 자료가 60%를 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종파의 불교 교학이 융성하였다는 점과 다른 유과간에 교학상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원인도 있지만, 아마도 11세기 중반부터 訓點을 스승에게서 전수하는 學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祖本의 본문이나 訓點을 충실하게 전승하는 訓點의 고정이라는 결과가 訓點本의 증가와 함께 年代記入의 기회도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⁹⁾

이와 같이 방대한 일본의 훈점자료에 중에서 여기서는 본고에서 예시한 역독점의 대표적인 자료들에 한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한문훈독 기입은 가타가나(片仮名)와 오코토점을 사용하여, 日本語 語順으로 읽어내려 가는 것이 일반적인 訓讀法이다. 일본의 한문훈독에 있어서 오코토점은 가나(仮名)점보다도 나중에 발생하였으며, 훈점에 있어서 符號化는 먼저 句點·역독부호 등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일반적인 정설이다.¹⁰⁾ 또한 일본훈점의 초기자료로서 句切點·逆讀點·수개의 星點 등이 기입되어 있는 「華嚴刊定記 卷第五」(1卷) (783년; 白點 / 788년; 朱點)·「華嚴要義問答 卷上·卷下」(2卷)(799년; 識語 / 802년; 黃褐色點)·「華嚴文義要決」(1卷)(800년경; 黃褐色點) 등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訓點은 南都古宗의 하나인 華嚴宗의 학승 사이에서 창안되어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¹¹⁾

9세기초에 佛徒가 훈점 기입을 위하여 字間·行間の 협소한 장소에 적당하고 작은 형태의 문자, 또 講義·聽聞을 위하여 속기에 적합한 字劃이 적은 문자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욕구에 의해서 萬葉仮名の 자획을 생략한 片仮名가 발생하였다. 초기에는 平仮名와 片仮名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점차로 萬葉仮名와 平仮名가 모습을 감추고, 片仮名 중심의 훈점자료가 많아지게 된다. 800년경의 「醍醐寺藏梵網經」에서는 아직 오코토점이 발생하기 이전의 훈독형태로서 萬葉仮名가 사용되고 있다.

9세기에 들어가면, 일본의 훈점사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초기의 800년경의 자료로서 「願經四分律」18권을 들 수 있다.¹²⁾ 모두 18권이 전해지고 있으며 仮名는 眞仮名에 가까운 字體가 많으며, 오코토점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에 사용된 오코토점의 부호의 종류는 적으며, 特殊點乙類로 분류되고 있다. 「成實論」11권은 天長五年(828)의 년대를 기입하고 있는 最古의 훈점본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仮名는 眞仮名가 사용되지 않고 略體仮名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이전의 훈점본에서보다 상당히 많은 오코토점 50여종이 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부터 급격하게 발달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東大寺諷誦文稿」는 830년경 불교관계의 願文 등의 草稿로서 片仮名混用文으로는 最古의 자료이다. 경어 등이 나타나는 변체한문적인 문장에 特殊點乙類로 분류되고 있는 朱點이 가점되어 있다.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10권은 830년경의 白點이 선명하게 남아있으며 상세하게 기입된 훈점은 第二群點으로 9세기를 대표하는 훈점자료로서 자료적 가치가 널리 알려져 있다. 「石山寺本大方廣佛華嚴經卷」는 「石山寺一切經」으로서 전해지고 있는 자료로서 이중 57권이 8, 9세기의 書寫本으로 白點이 기입되어 있으며, 白點이 가장 잘 보존

9) 築島裕(199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研究篇』 汲古書院 25 쪽 이하
10) 春日政治(1952/1984) 「初期點法例」, 『古訓點の研究』(春日政治著作集 所收 勉誠社 267 쪽
11) 築島裕(1969) 『平安時代語新論』 東京大學出版會 28 쪽 이하.
12) 본고에서 언급되는 자료 연대 추정은 「築島裕(198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ヲコト點 仮名字體表』 汲古書院」에 의함.

되어 있는 제2차점은 36권으로 860경으로 가점시기를 추정하고 있는 特殊點乙類이다. 「地藏十輪經」는 平安時代元慶7年(883)에 가점된 白點의 第三群點이 전해지고 있다. 9세기의 促音便 등의 일본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加點年代가 명확한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

10세기 이후가 되면 방대한 훈점자료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 본고와 관련된 자료를 들어보면, 「妙法蓮華經玄贊」2권은 950년경의 第三群點과 順曉和尚點의 白點이 상세하게 가점되어 있으며, 石山寺의 內供淳祐의 훈점자료로서 중요하다. 「法華義疏」6권은 長保4年(1002)의 연대가 기입되어 있으며 加點者인 藥師寺의 注算의 독자적인 第三群點의 변형인 오코토점을 나타내고 있다. 「龍光院藏妙法蓮華經」7권은 1058年頃の 訓點資料로서 中院僧正點의 白點이 상세하게 가점되어 있으며, 이것은 明算의 훈점으로 알려져 있다. 「興福寺本大慈恩寺三藏法師傳」10권은 院政期の 承徳3年(1099)과 永久4年(1116)의 朱點과 墨點의 喜多院點과 仮名點이 상세하게 가점되어 있는 자료이다. 「大唐西域記」8권은 長寛元年點(1163)으로 朱點의 東大寺點과 墨點의 仮名點이 加點되어 있다. 一般訓點本과는 다른 특이한 형태의 和訓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九條本文選」권제20은 承安2年點(1173)으로 墨點과 朱點의 古紀傳點과 仮名點이 加點되어 있으며, 古訓法을 전하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3.2. 訓點資料에서 사용된 逆讀點¹³⁾

[初期 訓點資料의 逆讀點]

① 非自然勝性等起相緣故不起
即顯還滅. <華嚴刊定記卷五>

② 如真諦三藏七事記中引真實論
<佐藤本華嚴文義要訣>

13) 본고에서 제시되는 용례는 다음의 公刊된 영인본과 연구논문에 의한 것이며, 용례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오코토점과 仮名點은 생략하기로 한다
春日政治(1942/1985)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古點の國語學的研究』 勉誠社
中田祝夫(1958) 『古點本の國語學的研究 譯文篇』 講談社
大坪併治(1968) 『訓點資料の研究』 風間書房
築島裕(1965) 『興福寺本大慈恩寺三藏法師傳古點の國語學的研究 譯文篇』 東京大學出版會
中田祝夫(1969) 『東大寺諷誦文稿の國語學的研究』 風間書房
大坪併治(1968) 「返點の發達」, 『訓點語の研究』 所收
小林芳規(1974) 「返點の沿革」, 『訓點語と訓點資料』 54輯

③ 一切行我 皆得入 生「入」佛家 坐佛地 .
(ニセケチ) 一

<翻寺藏梵網經>

상기의 자료는 800년경의 훈점의 초기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구두점과 일본어의 어순을 나타내는 역독점과 매우 적은 수의 오키토점이 사용된 자료들이다. ① 「華嚴刊定記」에는 句讀點과 일본어의 어순을 나타낸 漢數字 「一二三」과 漢數字 「四」는 4개의 橫劃을 우측에 기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좌측하단에 나타나는 讀點은 역독점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佐藤本華嚴文義要決」는 『東大寺諷誦文稿』의 紙背에 나타나는 자료로서 역독을 시작하는 한자에 左上向의 弧線이 기입되어 있으며, 그 위로 漢數字 「二三」을 좌측에 기입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逆讀點 외에 句切線, 縱線의 合符, 「テ, ヲ, ト, ノ, ハ, ナリ」의 6개의 원시적인 오키토점이 드물게 加點되어 있다.¹⁴⁾ ③ 「梵網經」은 오키토점이 사용되지 않고 萬葉假名の 假名點이 우측에 나타나며, 일본어의 어순을 漢數字 「一二」로 좌측에 기입하고 있다.

[平安初期の訓點資料]

④ 不 敢 上 大 小 一 便 跋 上 .
… 二 一 三 …

<小川本願經四分律古京甲卷8:04-05>

⑤ 如 以 貪 . 喜 樂 以 瞋 . 憎 惡 以 彼 法 . 自 高 . 亦 以
 乏 . 爲 勝 . 非 欲 界 也 .
二 一 十 <成業論卷十五12:10-11>

⑥ 如 是 雖 修 出 離 而 戀 慕 父 母 朝 夕 難 忍 .
二 一 二 一

<東大寺諷誦文稿100行>

14) 小林芳規(2002)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口訣研究』 제8집, 口訣學會.
 中田祝夫(1969) 『東大寺諷誦文稿の國語學的研究』의 (註1)에서는 「テ, ニ, ヲ, ト, ノ, ハ, ナリ」 7개의 오키토점을 언급하고 있다.

⑦ 若欲願教_上三_二明_三六_一通_上聲_上聞_上獨_上覺_上自_上在_上菩_上提_上至_上兜_上兜_上地_上球_上

一切智智淨智不思議智不動智三藐三菩提正遍智者。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古京卷三46頁>

⑧ 無量千億劫難可得見汝

<石山寺大方廣佛華嚴經卷七十五02:27>

⑨ 居此佛土五濁惡世一切有情(中略)匱乏

所有七聖財(中略)具諸惡法

<地藏十輪經元慶卷二33-39行>

상기의 9세기의 훈점자료들에 사용된 역독점은 星點, 漢數字, 文字, 符號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④ 「願經四分律」에서는 좌측에 일본어 어순을 나타내는 漢數字와 「·」와 같은 점으로 實數를 기입하는 역독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이외에도 「‘」과 호응관계를 나타내는 「ˆ」와 같은 형태의 역독점도 사용하고 있다. ⑤ 「成實論」에서는 좌측하단의 星點과 우측의 「++」의 부호는 漢數字 「一二」보다 상위의 역독점을 나타내고 있다. ⑥ 「東大寺諷誦文稿」에서는 좌측의 漢數字 「一二」을 읽고, 우측의 漢數字 「一二」을 읽고 난 후에 상위의 순서로 「‘」의 역독점을 기입하고 있으며, 「難忍」우측에 기입한 「ˆ」의 형태는 한자 1자를 역독할 때 사용하는 역독점이다. ⑦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에서도 좌측의 漢數字 「一二三」을 읽고, 우측의 漢數字 「一二」을 읽고 난 후에 상위의 순서로 문자인 「上下」의 역독점을 기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 형태가 1예가 사용되고 있다. ⑧ 「石山寺本大方廣佛華嚴經卷」에서는 좌측에 漢數字 「一二三」와 한자의 하단에 역사선 「\」의 형태의 역독점을 사용하고 있다. ⑨ 「地藏十輪經」에서는 우측에 漢數字 「一二三四」를 읽고, 다시 우측에 기입된 상위의 漢數字 「一二三」을 기입하고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漢數字 「二三」에 「○」의 부호를 표시하였다. 이 외에도 9세기 훈점자료에서의 「= , ::.」 등의 다양한 역독점의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平安中期-院政期の訓點資料]

㉞ 令擊其請佛今所唱止不須說。
四 二 一 三 二

何等法耶 <法華經玄贊卷廿五卷三592-593行>

㉟ 欲顯今佛欲說一極之道也。
四 三 二 一

<法華義疏卷二732行>

㊱ 譬如童子·幼稚無識捨父·逃逝遠到他土。
下

(中略)甚大歡喜得未曾有。 <法華經卷三30:13-33:11>
上

㊲ 我等見汝空欲捨身·不爲利益·故

<興福寺本大慈恩寺三藏法師傳卷三261-262>

㊳ 時外道知難謝一屈·捨邪見。

<大唐西域記卷四271-272行>

㊴ 夫·擊·瓿·叩·鉢·彈·等。
二 一

搏·髀·而·歌 <九條本文選卷二十>

상기의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훈점자료에서 사용되는 역독점으로는 星點, 漢數字, 文字을 볼 수 있고, 최초로 雁點이 사용된 자료가 나타난다. ⑩ 「妙法蓮華經玄贊」에서는 漢數字와 星點의 역독점을 사용하여, 좌측에 漢數字 「一二三四」를 읽고, 아래의 좌측하단의 星點과 漢數字 「二」를 읽는 일본어 어순을 나타내고 있다. ⑪ 「法華義疏」에서도 일본어 어순을 나타내는 좌측에 漢數字 「一二三四」를 기입하고 있다. ⑫ 「龍光院藏妙法蓮華經」에서는 좌측하단의 星點의 역독점과 「到」의 좌측에 「待點」이 기입되어 있으며, 상위의 순서를 나타내는 「上下」는 52행에 걸치는 長文에 나타나고 있다. ⑬ 「興福寺本大慈恩寺三藏法師傳」에서는 假名點이 가점되어 있는 卷으로서 좌측하단의 星點의 역독점과 「欲·不·爲」의 좌측에 「待點」이 기입되어 있다. 상위의 순서를 나타내는 역독점으로 「待點」을 사용하고 있다. ⑭ 「大唐西域記」에서는 星點의 역독점만이 나타나고 있다. ⑮ 「九條本文選」에서는 좌측에 漢數字 「一二」와 字間에 한자 1자의 역독점으로 사용된 雁點이 처음으로 보인다. 이 시기 역독점의 형태는 9세기보다 매우 간소화 되어 정리된 것을 엿볼 수 있으며, 후대 자료에서 「待點」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13세기 이후의 역

독점으로는 漢數字와 문자의 「上(中)下」와 雁點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韓日의 釋讀資料에서 나타나는 逆讀點의 성격

한국에서 석독구결자료가 발견됨으로써 그 이전까지는 한문의 석독은 일본에서만 사용되었다는 생각은 바뀌게 되었으며, 한국의 석독자료와 일본의 훈점자료에 대한 비교연구들이 진전되었다. 특히 본고와 관련이 있는 역독점에 대한 논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 훈점자료에서 나타나는 역독점에 대한 것으로서 足利衍述는 13세기의 漢籍에 있어서 역독점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雁點의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¹⁵⁾ 그리고 大坪併治는 9세기 훈점자료를 중심으로 역독점을 星點 數字, 記號 文字의 4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¹⁶⁾ 더 나아가서 小林芳規는 초기의 훈점자료부터 13세기 이후까지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역독점의 형태와 기능의 변천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¹⁷⁾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석독구결자료에서의 역독점에 대해서 한일교류에 주목한 것은 우선 안병희의 논고에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구결판본에 나타나는 어순의 漢數字와 상위의 어순을 표시하는 「〇, 〇〇」의 역독점은 고대일본과의 문화 교류의 결과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⁸⁾ 藤本幸夫는 일본에 전해지는 한국의 조선시대의 「妙法蓮華經」과 「牧牛子修心訣」에 나타나는 漢數字의 역독점은 일본의 訓點이 奈良의 華嚴宗에서 創案되어 사용되었다는 점과 신라 유학생이 華嚴宗을 배워 귀국후 華嚴經을 강의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당시 신라에서 행해졌던 訓讀法이 일본에 전해졌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⁹⁾

최근에 발견된 角筆符號釋讀口訣資料와 일본의 훈점자료와의 역독점의 유사성을 언급한 小林芳規의 논고들이 있다. 角筆符號釋讀口訣資料에서 나타나는 긴 弧線 형태의 역독점은 「華嚴文義要決」에 기입된 역독점의 弧線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華嚴文義要決」은 일본에서도 매우 특이한 자료로서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역독점 외에도 한국의 석독법이 전해졌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²⁰⁾

상기와 같은 비교연구를 참조하면서 본고에서 제시한 한일의 역독점의 특성을 살펴보기

15) 足利衍述(1935) 「返点」, 『鎌倉室町時代之儒教』 所收

16) 大坪併治(1968) 「返点の發達」, 『訓點語の研究』 所收

17) 小林芳規(1974) 「返點の沿革」, 『訓點語と訓點資料』 54輯

18) 安秉禧(1976)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震檀學報』 41輯

19) 藤本幸夫(1992) 「李朝訓讀攷 其一」, 『朝鮮學報』 143, 朝鮮學會.

20) 林芳規(2002)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口訣研究』 第8집, 口訣學會.

小林芳規(2002)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日本古訓點との關係」, 『朝鮮學報』 182, 朝鮮學會

로 한다. 한국의 角筆符號釋讀口訣資料 중에서 逆讀點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瑜迦師地論」과 「金光明經」이며, 각필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한자의 字面 위에 직접 역독점의 右下向의 긴 弧線을 기입하고 있으나, 「金光明經」의 역독점은 긴 弧線이긴 하지만, 弧線의 방향이 右下向, 左下向, 左上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필점의 특성으로 가점 시기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판본의 성격상 「瑜迦師地論」이 초조대장경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른 시기에는 역독점이 통일된 형태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후대의 「金光明經」에서는 역독점의 형태가 매우 수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角筆符號釋讀口訣에서는 긴 弧線의 역독점의 사용은 두가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역독을 받는 字面에 직접 기입되어서 빨리 눈에 띄 수 가 있다. 만약 墨書文字釋讀口訣에서와 같이 역독점〔·〕의 형태이었다면, 문자의 역할을 하는 부호구결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역독점을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부호구결의 기입방법이 구나 절의 마지막 한자에 몰아서 기입하는 句節末懸吐原則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동사나 조동사를 읽을 때에 역독점이 필요한데, 상기의 현토 원칙에 의해서 부호구결의 다수가 句節末에 존재하기 때문에 역독을 받는 한자에 역독점을 기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입방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墨書文字釋讀口訣資料에서는 모든 자료에서 逆讀點을 균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부호들은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역독점 「·」과 구결자를 한문의 좌우행간 기입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능란하게 한국어 어순에 맞는 석독을 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의 역독점은 우측도에서 좌측도로 역독할 때 역독을 일으키는 한자나, 문자구결 뒤에 역독점을 기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角筆符號釋讀口訣과는 역독점의 기입 방법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墨書文字釋讀音讀口訣資料에서는 나타나는 역독점은 漢數字와 상위의 순서를 나타내는 「0, 〇〇, 〇〇〇」나 「8」를 기입하고 있다. 또한 漢數字「四五」는 「一二三」과 같이 橫劃으로 實數로 나타내거나 또는 「四」를 「=」와 같은 형태로도 기입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역독점의 역할로 漢數字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한문의 읽는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나, 상위의 순서를 나타내는 부호들은 역독을 일으키는 한자와 받는 한자에 기입된 호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800년경의 훈점자료에서 나타나는 역독점의 초기형태는 일본어의 어순을 나타낸 漢數字와 역독을 일으키는 한자에 左上向의 弧線이 기입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초기의 형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역독점은 漢數字라고 말할 수 있겠다. 9세기의 훈점자료들에 사용된 역독점은 星點, 漢數字, 文字, 符號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역독점은 일본어 어순을 나타내는 漢數字이며, 星點은 역독을 일으키는 한자의 좌측하단에 기입되어 있다. 또한 「'」나 「\」의 형태의 역독을 일으키는 한자에 기입되어 있다. 역독을 일으키거나 역독을 받는 한자에 기입하는 호응관계의 부호도

「 ‘ ’ 」 「 + + 」 「 ○ ○ 」와 같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훈점자료에서 사용되는 역독점으로는 星點, 漢數字, 文字를 들 수 있고, 최초로 雁點이 사용된 자료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星點이 역독점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星點은 좌측하단에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위의 순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漢數字와 左邊에 「待點」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상으로 한일 역독점에 대한 부호의 형태와 가점위치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역독점의 형태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기입 시기에 따라 형태상의 단절이 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훈점자료에서는 역독점의 형태면에서의 다양성은 보이지만, 매우 일관성 있게 역독점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星點, 漢數字, 文字 등이 전 시대에 걸쳐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역독점의 형태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고려시대의 단순한 右下向과 星點의 역독점의 형태에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漢數字와, 약간의 부호 형태의 역독점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훈점자료에서는 단순한 초기형태에서 9세기 다양하고 복잡한 역독점의 사용시기를 거쳐서 10세기 이후부터는 다양한 부호의 사용이 사라지고, 일반적으로 단순화된 역독점이 사용되고 있다.

역독점의 기입위치로는 자료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우측이 기본이 되고 있으나, 일본의 대표적인 역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星點은 좌측하단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독점의 형태에서 유사점을 살펴보면 星點, 漢數字, 상위의 순서를 나타내는 호응관계의 부호 「○ ○」의 사용은 한일 양국의 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漢數字의 「四五」를 「一二三」과 같이 橫劃으로 實數로 나타내는 것도 동일하다. 이러한 형태는 한자문화권으로서 역독점을 필요로 했던 한일 양국에서 보편적으로 고안해 낼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한다.

5. 맺음말

한국과 일본에 전해지는 한문석독자료에 나타나는 역독점은 어순이 다른 한문 문장을 보다 용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고안된 방법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문 문장이 한일 양국의 문장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용된 역독점의 형태도 자료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 시대에 걸쳐서 간행된 角筆符號釋讀口訣資料와 墨書文字釋讀口訣資料와 墨書文字釋讀音讀口訣資料에서 역독점을 사용하고 있다. 角筆符號釋讀口訣資料에서는 逆讀點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瑜迦師地論」과 「金光明經」이며, 「華嚴經」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전자의 자료에서는 역독을 받는 동사에 右下向, 左下向, 左上向 등의 긴 弧線을 기입하고

있다. 墨書文字釋讀口訣에서는 모든 자료에서 逆讀點「·」을 사용하고 있다. 역독을 받는 동사나 조동사의 구결자를 좌측에 기입하는 방법과 역독점이라는 매우 간단한 장치로서 한문을 한국어로 읽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다. 墨書文字釋讀音讀口訣은 어순을 나타내는 漢數字「一三四」와 漢數字보다 상위를 나타내는 순서를 「○」「8」과 같은 부호의 역독점을 기입하고 있다.

일본의 800년경의 초기형태의 역독점은 星點, 漢數字와 역독을 시작하는 한자에 左上向의 弧線등으로 매우 간단한 역독점들이 사용되었으며, 9세기의 훈점자료들에 사용된 역독점은 星點「·」, 漢數字「一三四」, 文字「上下」, 符號「'」「+」,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0세기 이후부터는 역독점의 형태가 단순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星點, 漢數字, 文字를 들 수 있고, 그 이전 시기에 많이 나타났던 부호의 형태가 차차로 모습을 감추게 된다. 후대의 자료에서는 상위의 어순을 나타내는 漢數字, 文字를 사용하는 대신에 한자의 左邊에 「待點」을 기입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이상으로 한일 역독점에 대한 부호의 형태와 가점위치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역독점의 형태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기입시기에 따라 형태면에서 단절이 있다. 이러한 점은 자료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훈점자료에서는 역독점의 형태에서의 다양성은 보이지만, 매우 일관성 있게 역독점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독점의 기입위치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우측이 기본이 되고 있으나, 일본의 대표적인 역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星點은 좌측하단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역독점의 형태상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星點, 漢數字, 상위의 순서를 나타내는 호응관계의 부호 「○○」를 사용하고 있으며, 漢數字의 「四五」를 「一二三」과 같이 橫劃으로 實數로 나타내는 것은 양국의 자료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한자문화권에서 고려할 수 있었던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南豊鉉 · 李丞宰 · 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第107輯, 訓點語學會, 1~58쪽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韓國書誌學會 32~33쪽.

朴鎮浩(2003) 『周本『華嚴經』卷第三十六の點吐口訣の解讀 -一字吐口訣との對應を中心に-』 『口訣研究』 第11輯, 口訣學會, 211~247쪽

安秉禧(1977) 『中世國語口訣의 研究』 一志社 21~34쪽

尹幸舜(2003) 「漢文釋讀에 쓰여진 한국의 角筆符號口訣과 일본의 오코토點의 비교 -「瑜迦

- 師地論」의 點吐口訣과 文字口訣을 중심으로-」 『口訣研究』 第10輯, 口訣學會 79 ~ 112쪽
- 李丞宰(2001) 「周本 『華嚴經』 卷第22의 角筆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研究』 第7輯, 口訣學會. 1~32쪽
- 李丞宰(2003) 「周本 『華嚴經』 卷第五十七의 書誌와 符點口訣에 대하여」 『한글』 262, 한글학회. 215~246쪽
- 鄭在永 외(2003) 『韓國角筆符號口訣資料와 日本訓點資料 연구 -華嚴經資料를 중심으로 -』 대학사. 15~154쪽
- 石塚晴通(1993) 「中國周辺諸民族に於ける漢文の釋讀」 『訓點語と訓點資料』 第90輯, 訓點語學會 1~7頁
- 石塚晴通(2002) 「漢字文化圈의 加點史에서 본 高麗口訣과 日本語初期 訓點資料」 『口訣研究』 第8輯, 口訣學會. 123~128쪽
- 大坪併治(1961) 『訓點語の研究』 風間書房 3~26頁
- 大坪併治(1981) 『平安時代における訓點語の文法』 風間書房. 419頁 以下.
- 大坪併治(1992) 『大方廣佛華嚴經古點の國語學的研究』 風間書房. 6~11頁
- 春日政治(1982), 『仮名發達史の研究』 (春日政治著作集1) 勉誠社. 1~98頁
- 春日政治(1984) 「斯道文庫藏本願經四分律」 『古訓點の研究』 (春日政治著作集6) 勉誠社. 156 ~ 187頁
- 春日政治(1942/1985)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古點の國語學的研究』 勉誠社. 169頁 以下.
- 小林芳規 · 西村浩字(2001) 「韓國遺存の角筆文獻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第107輯, 訓點語學會. 3~26頁
- 小林芳規(2002)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口訣研究』 第8輯, 口訣學會. 50~76쪽
- 小林芳規(2002)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 -日本古訓點との關係-」 『朝鮮學報』 第182輯, 朝鮮學會. 1~82頁
- 築島裕(198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ヲコト點 仮名字體表』 汲古書院 89頁 以下
- 築島裕(1996) 『平安時代訓點本論考 研究篇』 汲古書院. 329~330頁
- 藤本幸夫(1988) 「古代朝鮮の言語と文字文化」 『ことばと文字』 中央公論社. 175~240頁
- 吉田金彦 外(2001) 『訓點語辭典』 東京堂出版. 128~228頁

要 旨

韓國と日本に伝わる漢文釋讀資料に現れる逆讀點は、語順が異なる漢文文章をより容易にかつ正確に理解しようと考案された方法である。韓國では高麗時代と朝鮮時代にかけて刊行された角筆符號釋讀口訣資料と墨書文字釋讀口訣資料と墨書文字釋讀音讀口訣資料においては逆讀點を使用している。角筆符號釋讀口訣資料では逆讀點を使用しているのは「瑜迦師地論」と「金光明經」であり、「華嚴經」では使用していないのである。前者の資料においては逆讀を受ける動詞に右下向・左下向・左上向などの長い弧線を記入している。墨書文字釋讀口訣では全ての資料において逆讀點「、」を使用している。逆讀を受ける動詞や助動詞の口訣字を左側に記入する方法と逆讀點という非常に簡単な装置によって漢文を韓國語に読む方法を考案したのである。墨書文字釋讀音讀口訣は語順を表す漢數字「一二三四」と漢數字より上位を表す順序を「○」や「8」のような符號の逆讀點を記入している。

日本の800年頃の初期形態の逆讀點は星點・漢數字と逆讀を始める漢字に左上向の弧線などで非常に簡単な逆讀點が使用されており、9世紀の訓點資料に使用された逆讀點は星點「・」、漢數字「一二三四」、文字「上下」、符號「‘ ’」「+ +」「○」などで多様に現れる。10世紀以降は逆讀點の形態が單純化する傾向があり、星點・漢數字・文字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その以前の時期に多く現れた符號の形態が次第にその姿を消すことになる。後代の資料においては上位の語順を表す漢數字・文字を使用する代りに漢字の左邊に「待點」を記入する方法を考案したのである。

以上の韓日の逆讀點の形態は、韓國の口訣資料の特性や記入時期によってその形態の斷切が現れる。これに對して日本の訓點資料における逆讀點の形態は多様性はみえるが、非常に一貫性のある逆讀點が使用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逆讀點の記入位置では基本的に韓國では右側が基本となっているが、日本の代表的な逆讀點といえる星點が左側下段に位置している。

キーワード：角筆符號釋讀口訣、日本の訓點、點吐口訣、釋讀口訣、文字口訣、逆讀點、
逆讀符號、漢文釋讀法

투 고 : 2005. 11. 30
1차 심사 : 2005. 12. 10
2차 심사 : 2005. 12. 31

住 所 : (305-3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산16-1 한밭대학교
電 話 : 042-821-1355
e-mail : hsyoon@hanbat.ac.kr